

3강·2중·4약·1최약... '부익부 빈익빈' 뚜렷

(SSG·키움·LG) (KT·KIA) (롯데·두산·삼성·NC) (한화)

프로야구 전반기 결산... SSG, 역대 최초 전 기간 1위 '위업' 키움, 예상 외 선전... 삼성, 주전 줄부상에 8위 추락 충격



14일 막을 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전반기가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팀은 SSG랜더스다.

SSG는 85경기에서 56승3무26패를 거둬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키움 히어로즈(54승1무31패)의 추격을 뿌리치고 1위를 확정했다.

개막 10연승으로 일찌감치 치고 나가기 시작한 SSG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KBO리그 40년 역사상 최초로 전반기 전 기간 1위라는 기분 좋은 기록을 남겼다.

외국인 윌버 폰트(10승4패)와 돌아온 좌완 에이스 김광현(9승1패)의 원투 펀치는 선두 수선의 밑거름이 됐다. 두 선수는 현재까지 19승을 합작하는 동안 5번만 졌다. 키움과의 전반기 최종전에서 마운드에 오를 폰트가 승리투수가 되면 두 선수의 승수 합계는 '20'으로 높아진다.

타점 선두(72개)를 질주 중인 주장 한유섭과 간판 최정(타율 0.294 홈런 12개), 커리어 하이 시즌을 예약한 유격수 박성환

(타율 0.331) 등이 중심을 잡은 타선도 남부럽지 않은 전반기를 보냈다.

키움의 선전은 개막 전 전문가들 예측과 조금 동떨어진 결과다.

야스엘 푸이그라는 메이저리그(MLB) 스타 플레이어 출신 타자를 데려온 것 외에는 겨우 내 별다른 전력보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하러 박병호(KT)의 이적과 조상우의 입대로 투타에 공백이 생겼지만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히 2위에 자리했다.

팀 타율은 0.248로 10개 구단 중 9위에 머물렀지만, 팀 평균자책점 3.22로 이 부문 전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마운드가 무척 견고했다.

안우진(10승4패)-에릭 요키시(7승4패)의 선발 듀오는 SSG 못지않은 파괴력을 자랑했고, 홀드 1위 김재웅(23개)이 버티 계투진은 한 번 리드를 잡으면 좀처럼 뒤집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7회까지 앞선 46경기에서 45승1무의 100% 승률을 보였다는 점은 필승조의 강력함을 대변한다.

SSG와 키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류지

현 감독 체제 2년 차를 맞이한 3위 LG 트윈스(51승1무31패)도 승패 마진을 +20까지 늘리면서 선두 경쟁에 뛰어 들었다.

SSG와 키움, LG가 3강을 형성했다면 4위 KT 위즈(43승2무38패)와 5위 KIA 타이거즈(42승1무39패)는 2중에 가깝다.

KT와 KIA의 격차는 1경기인 반면 KT와 3위 LG는 7.5경기, KIA와 6위 롯데 자이언츠(37승3무44패)는 5경기까지 벌어져 두 팀만 뚝 떨어져 나온 모양새다.

'디펜딩 챔피언' KT는 주축 타자 강백호의 부상 이탈과 통합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운 에이스 윌리엄 쿠에바스, 새 외국인 타자 헨리 라모스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약재와 싸우면서 한때 8위에 머물렀으나 압도적 홈런 1위인 박병호(27개)를 중심으로 위기를 넘겼다.

KIA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8연패를 당했지만, 초반 승수를 벌어들인 덕분에 5할 이상의 승률로 전반기를 마쳤다. 지난 겨울 양현종과 나성범을 데려오면서 9위에 그쳤던 지난해보다 확실히 전력이 좋아졌다.

6-9위를 형성한 롯데, 두산 베어스(35승2무46패), 삼성 라이온즈(35승49패), NC 다이노스(32승2무48패)는 4약으로 분류된다.

14승1무9패로 단독 2위로 4월을 끝낼 때까지만 해도 거침이 없던 롯데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내리막을 탔다.

7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경험한 두산은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SSG랜더스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한 SSG 김광현(가운데) 등이 자축하고 있다. 뉴스스

주축들의 이적과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7위에 내려 앉았다.

삼성의 8위 추락은 가장 충격적인 결과로 다가온다. KT와 1위 결정전을 벌였던 위업은 반년 만에 신기투처럼 사라졌다. 주전들의 줄 부상과 만연한 이들의 부진이 겹친 결과다.

작년 14승5패 평균자책점 2.63의 성적을 발판 삼아 4년 최대 38억원에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은 선발 백정현은 0승10

패 평균자책점 6.63으로 체면을 완전히 구겼고, 5년 총액 120억원짜리 장기계약자 구자욱은 부상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40경기 출전에 그쳤다.

2년 전 한국시리즈 제패 후 마운드에 집행감을 꽃았던 NC 역시 이동욱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는 아픔 속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렇고 하위 4개팀은 한화 이글스에 비

하면 처지가 나은 편이다. 83경기에서 25승1무58패에 그친 한화는 8.5경기나 뒤진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가득이나 얇은 선수층에 외국인 투수 두 명이 동시에 이탈하자 선발진이 와르르 붕괴됐다. 6월9일 두산전부터 같은 달 22일 LG전까지는 10연패를 당하면서 프로야구 첫 3년 연속 10연패 팀이라는 불명예도 떠안았다. 스키아데일리/뉴스스

박찬욱 감독 영화 '헤어질 결심' 100만명 넘겼다

영화 '헤어질 결심'이 100만 관객을 넘겼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헤어질 결심'은 14일 3만4876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100만4145명).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100만명을 넘긴 건 이번이 10번째다. 앞서 △범죄도시 2(1261만명) △타터 스트레이지: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명) △탑건:매버릭(493만명) △슈리기 월드:도미니언(283만명) △마녀2(278만명) △토토:러브 앤 센터(203만명) △해적:도깨비 깃발(133만명) △브로커(125만명) △신비한 동물들과 덩블도어의 비밀(119만명) 등이 있었다.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의 새 영화로, 올해 한국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



영화 '헤어질 결심'이 100만 관객을 넘겼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헤어질 결심'은 14일 3만4876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뉴스스

았다. 산에서 추락사한 남자와 그의 아내, 남자의 죽음에 관해 수사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탕웨이와 죽은 남자의 아내를, 박해일이 형사를 연기했다.

연매출 800억 젊은 사장 "슈퍼카는 나의 힘"

tvN '돈 잘 버는 젊은 사장' 첫방 "하루 20시간 거의 차에서 일해 바쁜 업무 버티게 하는 원동력"

연 매출 800억원의 주점을 이끄는 '젊은 사장' 최해성이 슈퍼카를 타는 이유가 있다고 언급한다.

13일 첫 방송된 tvN '돈 잘 버는 젊은 사장'에서는 연매출 800억을 달성한 만 29세 젊은 사장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졸음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주점이 공개되자 MC 서정훈과 주우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사장 최해성이 명품 스포츠카를 타고 등장했다. 팔에는

억단위 시계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서정훈은 "약간 허세가 보인다"라며 3억 넘는 차를 타고 등장한 사장을 유심히 탐색했다. 하지만 최해성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슈퍼카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도 "거의 20시간 일한다. 대부분의 시간을 차에서 보낸다"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퇴근하고 가다가 핸들의 엠블럼을 보면 (일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질 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막에 함께 나온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티라'라는 말처럼



첫 방송된 tvN '돈 잘 버는 젊은 사장'. 뉴스스

럼 바쁜 업무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뜻이다.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나의 건강 타당포인트 리턴업

Returnup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X(1+1)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